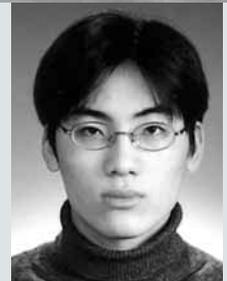


#### ■ 수상소감 한마디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벤처넷에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네요. 며칠 전 대학선배님들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로또복권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복권당첨확률과 벤처인으로 성공하는 확률을 말씀하시더군요. 둘 다 햇빛이 째깍한 여름 오후에 천둥번개를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벤처와 복권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벤처는 허황된 꿈을 좇는 복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어디 몇 분을 투자해서 숫자를 선택하는 것과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피땀 흘려 공부하고 실험하며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하며 하나의 새로운 업적을 완성하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벤처인들 힘내세요.



박성민/ N사 모바일 게임개발부

## 진정한 벤처사랑은 금전이 아니라 '격려'와 '인정'입니다

벤처(VENTURE).

사전을 찾아보면 모험적 사업이란 뜻과 함께 투기적 사업이란 뜻이 함께 있습니다.

벤처사업이란 성공한다면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게되지만, 실패한다면 그 반대의 상황이 되는 위험한 사업입니다. 또한 벤처로 성공하는 기업이 5%도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5%안에 들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 나이 이제 24살.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

유는 저의 친형님때문입니다. 친형님은 제가 몸담고 있는 게임개발업체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저에겐 부모님이고,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또한 진정한 벤처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형님은 대학 졸업 후 3년 정도 막일을 하며 창업의 꿈을 키우셨습니다. 100권 이상의 사전조사와 아이디어 노트가 형님의 방을 빼곡히 채울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RPG게임개발을 축으로 창업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게임을 좋아했고, 형님의 권유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초기 형님과 저, 그리고 패기와 아이디어로 무장한 7명의 젊은 청년들은 커피를 하루 5잔 이상씩 마시고, 코피까지 흘리며 일했습니

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힘들었지만 성취와 보람으로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직원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창업 초기를 벗어날 때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원들에게 충분한 연봉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창업초기 지나서 그런지 열정은 차츰 사라지고 직원들은 지쳐만 갔습니다.

저 역시 사장님의 동생이기 이전에 직원의 일원으로서 어깨가 좁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흐려지고 있을 때, 형님은 벤처CEO로서 진정한 벤처정신을 발휘하셨습니다. 대기업에서 흉내 낼 수 없는 파격적인 비금전적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셨던 것입니다.

여가를 중시하는 신세대에게 1개월 배낭여행 휴가를 주고, 육아문제도 고민하는 주부사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인기 있는 영화를 평일 조조할인으로 단체 관람하는 등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직원의 사기를 최대한 높여주셨습니다. '잘했어' 카드를 발급해 공치사지만 기분 좋게 해 주셨고, 형님의 차를 선뜻 저희들에게 빌려주셨습

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업 초기의 정신과 기백으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저희 형님, 아니 사장님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금전은 사실 부분적인 동기부여일 뿐이라고. 동료에게 끈끈한 연대의식을 느끼고 잊사람으로부터 격려와 인정을 받는 즐거운 직장이야말로 금전보다 소중한 벤처직원의 꿈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 뜻을 받들어 3년 후에 창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파격적으로 잘 할겁니다. 자신있습니다.

벤처에 꿈을 갖고 계시고, 미래의 벤처CEO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격려'와 '인정'입니다.

우리 벤처인들 힘냅시다. 힘... 화이팅..., 아자!!!



19일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이 러브 벤처' 공모전 시상식에서 장흥순 회장(앞줄 왼쪽서 두번째), 오형근 전무(오른쪽 첫번째), 수상자들이 벤처 재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협회 'I ♥ Venture' 이벤트 시상식 개최

협회가 벤처넷 개편 기념으로 시행한 'I ♥ Venture' 이벤트 시상식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등 알렘벤처상 수상자인 김진영씨(실트로닉테크놀로지 근무)를 비롯한 수상자 및 벤처넷 운영주체인 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시상식은 장흥순 회장의 시상과 치사, 참석자 간담 순으로 진행되었다.